

다원주의 시대의 새로운 평론: 예술의 종말, 작가의 죽음, 그리고 해석의 급진적 민주화

서론: 해석의 시대와 창작의 폭발적 증식

서구 미학과 예술 제도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전례 없는 존재론적 전회(ontological turn)를 경험했다. 예술의 본질을 물질적 매체와 감각적 아름다움에서 찾던 전통적 패러다임이 붕괴하고, 예술작품을 규정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해체되는 이른바

'다원주의(Pluralism)'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¹ 이러한 인식론적 단절을 촉발한 두 개의 혁명적 사건은 1964년 아서 단토(Arthur Danto)가 주창한 '예술의 종말(The End of Art)' 선언과 1968년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주창한 '작가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 선언이다.¹

단토의 철학은 예술의 조건이 시각적 식별성에서 개념적 담론과 역사적 맥락으로 이동했음을 논증했으며³, 바르트의 기호학은 작품의 의미를 생성하는 권력을 창작자에서 수용자(독자 및 관객)로 완전히 이전시켰다.⁴ 이 두 가지 거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 물질적 제작을 배제하고 아이디어 자체를 예술로 규정한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와 솔 르윗(Sol LeWitt)의 개념예술(Conceptual Art) 혁명이 결합하면서 현대 예술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⁶ 이 세 가지 혁명적 흐름의 교차점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이고도 급진적인 진리는 보편적 미적 기준이 붕괴하고, 작품의 의미가 해석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직조되며, 사유와 개념의 제시 자체가 예술로 인정받는 시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에 대한 모든 진지한 해석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새로운 예술 창작이 된다.¹

본 보고서는 아서 단토의 예술종말론,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 이론, 그리고 개념예술의 철학적 정의를 통합적으로 수렴하여, 예술 평론이 어떻게 하나의 독립된 '지시체를 가진 메타예술(meta-art with a referent)'로 승격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예술 생태계가 닫힌 구조에서 벗어나 무한히 증식하는 유기체적 구조로 재편되는지, 그리고 평론이 예술이 되기 위한 질적 조건이나 수준의 차이를 철폐함으로써 달성되는 해석의 급진적 민주화에 대해 철저히 규명한다.¹

제1부: 무너진 법정과 기준의 죽음

플라톤적 이데아론과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해체

서구 예술 비평의 역사는 "수준 높은 예술"이라는 본질주의적 환상을 구축해 온 기나긴 과정이었다. 이 이데올로기의 기저에는 완벽한 원형인 이데아(Idea)를 상정하고, 현실의 예술을 그 이데아에 대한 모방(mimesis)의 척도로 평가한 플라톤적 위계 세계관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¹ 이러한 본질주의적 사고는 예술 제도의 구조적 토대가 되어 예술의 가치를 위계화하는 데

복무했다. 18세기 드니 디드로(Denis Diderot)의 살롱 비평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평론가는 대중을 계몽하고 예술작품의 객관적 우수성을 감별하는 '보편적 기준의 수호자'이자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심판자'로 군림해 왔다.¹ 전통적 평론의 핵심 전제는 보편적 미적 기준이 실재하며, 평론가는 고도의 훈련된 안목을 통해 그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었다.

이러한 비평 중심주의와 매체 본질주의는 20세기 중반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의 모더니즘 형식주의(Formalism)에 이르러 이론적 정점에 달했다. 그린버그는 칸트의 비판 철학을 차용하여, 각 예술 매체가 자신의 고유한 매체적 특성을 순수하게 환원하는 과정을 모더니즘의 본질로 규정했다.¹⁰ 특히 회화에 있어서는 2차원적 평면성(flatness)의 추구와 3차원적 환영의 배제가 가장 순수한 회화적 성취로 평가받았다.¹⁰ 그린버그의 비평 체계는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강력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했으나, 이는 결국 예술의 의미를 단일한 진화론적 궤적으로 축소시키고, 형식적 순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들을 배제하는 엘리트주의적이고 닫힌 체계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¹

단토의 브릴로 박스와 예술종말론: 시각적 기준의 붕괴

이토록 견고했던 평론가의 절대적 권위와 형식주의적 보편 기준은 1964년 앤디 워홀(Andy Warhol)이 뉴욕 스테이블 갤러리(Stable Gallery)에서 선보인 «브릴로 박스(Brillo Box)» 전시에 의해 철학적 붕괴를 맞이한다.¹⁴ 상업용 세제 상자인 실제 브릴로 박스와 워홀이 실크스크린으로 정교하게 모방하여 제작한 합판 브릴로 박스는 시각적으로 완벽히 동일했다. 즉, 두 대상 사이에는 지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Indiscernibility).³

아서 단토는 시각적으로 구별 불가능한 두 대상 중 하나는 평범한 일상 사물(상품)에 불과하고 다른 하나는 예술작품으로 승인될 수 있다면, 예술을 예술로 정의하는 본질은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적, 물리적 속성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³ 예술을 결정짓는 것은 망막적 즐거움이나 형태적 완결성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이론적 맥락, 곧 단토가 명명한 '예술계(Artworld)'라는 역사적, 철학적 담론의 대기(atmosphere)다.³ 워홀의 작품은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지시성(Aboutness)'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시각적 구별 불가능성이라는 형태를 통해 '구체화(Embodiment)'함으로써 예술이 된 것이다.³

나아가 단토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술의 종말(The End of Art)'이 도래했다고 명명했다. 이는 예술 창작 활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헤겔(G.W.F. Hegel)의 역사철학적 변증법을 계승한 단토의 맥락에서 예술의 종말이란, 예술이 특정한 시각적 양식(예컨대 재현주의나 모더니즘적 순수성)을 향해 단선적으로 진보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거대 서사(Grand Narrative)'의 종말을 의미한다.² 미술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수행해 온 역사적 과업을 철학에 넘겨줌으로써 예술은 철학적 자기 인식의 단계에 도달했고, 이로써 양식적 강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²

비평 패러다임 비교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비평 (형식주의)	단토의 다원주의 비평 (예술종말론 이후)
예술의 본질적 조건	매체의 순수성, 평면성, 감각적 형식	예술계의 담론, 철학적 맥락 (비가시적 속성) ³

비평가의 사회적 역할	보편적 기준에 입각한 심판자 및 가치 평가자	작품에 내재된 철학적 지시성(Aboutness)의 해석자 ³
예술의 역사관	단선적, 목적론적 진보 역사관	역사 이후(Post-Historical), 객관적 다원주의 ²
평가의 주요 척도	형식적 완결성과 시각적 우수성	사물의 철학적 구체화(Embodiment) 방식 ³

이제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객관적 다원주의(Objective Pluralism) 시대가 열렸다.² 보편적 기준이 사라진 다원주의적 상황에서, 전통적 비평이 "이 작품은 저 작품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정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미적 보편성이 소멸한 텅 빈 법정에서 평가 중심의 비평은 결국 평론가 개인의 주관적 취향 표명이나 권력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¹ 그러나 단토의 이론이 전통적 비평의 토대를 무너뜨린 것은 비평의 종언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편적 평가 기준의 부재와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가능성은, 비평이 심판자의 환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창조적이고 독립적인 예술 행위로 재정립할 수 있는 광활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¹

제2부: 해석의 탄생과 텍스트의 해방

작가의 죽음과 독자로서의 권력 이동

단토의 철학이 예술작품의 객관적 존재론을 물질에서 개념적 담론으로 이동시켰다면,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이론은 작품의 의미를 생성하고 통제하는 권력의 주체를 창작자(Author)에서 수용자(Reader)로 근본적으로 이동시켰다.¹ 과거의 낭만주의적이고 근대적인 문학 비평과 예술 비평은 텍스트(작품)를 작가의 내면, 개인적 전기, 혹은 심리적 의도를 해독(decipher)하는 투명한 창구로 취급했다. 이른바 '저자-신(Author-God)'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평론의 궁극적 목표였으며, 이 단일하고 신학적인 의미를 성공적으로 발견한 순간 텍스트는 닫히고 평론가는 정복의 승리를 선언했다.⁴ 즉, 저자의 권위가 텍스트의 무한한 가능성을 억압하는 폭군으로 군림했던 것이다.⁴ 그러나 1967년 바르트는 에세이 「작가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을 통해 텍스트가 작가의 독창적인 기원에서 발화되는 순수한 창조물이 아니라, 수천 개의 문화적 기원으로부터 온 인용들의 짜임(tissue of citations)이자 다차원적인 공간(multi-dimensional space)에 불과하다고 철저히 논파했다.⁴ 바르트는 "언어가 말하는 것이지, 작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저자라는 기원을 지워버림으로써 텍스트를 단일한 의미의 감옥에서 해방시켰다.⁴ 여기서 도출되는 가장 결정적인 통찰은 텍스트의 통일성이 텍스트가 출발한 기원(작가의 의도)이 아니라 텍스트가 도착하는 목적지(독자의 독해)에 존재한다는 점이다.⁴ 따라서 바르트는 단언한다. "작가의 죽음은 독자의 탄생을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¹ 이러한 작가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텍스트의 유일한 진리를 독점하던 '권위적 비평가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는 비평 행위 자체의 폐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의 진정한 해방을 의미한다.¹ 텍스트에 궁극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성, 과학, 법칙이라는 억압적 체계에 저항하는 혁명적이고 반신학적인(anti-theological) 활동이 되며, 비평가는 작품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판사가 아니라 텍스트와 함께 의미를 공동 창조하는 파트너로 거듭나게 된다.⁴

해석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S/Z』의 실천적 증명

바르트의 통찰은 단순한 이론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1970년에 출간된 저작 『S/Z』를 통해 비평이 어떻게 실천적인 예술 창조가 되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냈다.¹ 바르트는 오노레 드 발자크(Honoré de Balzac)의 사실주의 단편소설 『사라진(Sarrasine)』을 분석하면서, 독자가 이미 규정된 의미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고 마는 '읽기 가능한(readerly/lisible)' 텍스트의 개념을 전복시켰다.²¹ 대신 독자가 스스로 텍스트의 네트워크에 개입하여 의미를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쓰기 가능한(writerly/scriptible)' 텍스트의 개념을 제시했다.²¹

바르트는 발자크의 원본 텍스트를 561개의 잘게 쪼개진 독서 단위(lexias)로 분해한 뒤, 이를 해석학적(hermeneutic), 의미론적(semic), 상징적(symbolic), 행동적(proairetic), 문화적(cultural) 코드 등 5개의 복잡한 기호학적 코드(codes)를 통해 새롭게 엮어냈다.²⁴ 이 해체와 재조립의 과정은 원작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수한 기표들의 은하계(galaxy of signifiers) 속에서 비평가 스스로가 새로운 텍스트적 네트워크를 '창조'하는 고도의 수행적 행위였다.²⁶

그 결과물인 『S/Z』는 단순한 해설서를 넘어, 발자크의 원작과 동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분량과 문학적 복잡성을 지닌 완전히 독립적인 철학적-문학적 예술작품으로 탄생했다.¹ 이는 평론가 혹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공동 창조하는 능동적 생산자이며, 텍스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해석 행위 자체가 원작의 권위를 해체하고 스스로 예술적 실천의 정점에 설 수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극단적이고도 성공적인 역사적 사례다.

제3부: 개념예술의 혁명과 물질에서 개념으로의 도약

단토가 철학적으로 다원주의적 공백을 마련하고 바르트가 기호학적으로 독자에게 창조적 권위를 부여했다면,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와 솔 르위트(Sol LeWitt)를 위시한 '개념예술(Conceptual Art)'의 등장은 해석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완벽한 실천적이고 존재론적인 형태를 완성했다.¹

1965년 코수스가 발표한 «하나이자 셋인 의자(One and Three Chairs)»는 시각예술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⁷ 이 작품은 실제 나무 의자, 그 의자를 촬영한 실물 크기의 흑백 사진, 그리고 사전에서 발췌한 '의자'라는 단어의 언어적 정의를 나란히 병치한 작업이다.⁶ 코수스는 이 극도로 건조한 병치를 통해, 예술작품의 본질이 물감을 칠하거나 조각을 깎는 물질적 재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고 규정하는 '개념(의자성, chairness)'과 기호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 그 자체임을 선언했다.²⁷

코수스는 1969년 선언문 「철학 이후의 예술(Art After Philosophy)」에서 "마르셀 뒤샹 이후의 모든 예술은 그 본성상 개념적(conceptual)이며, 예술은 오직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갈파했다.⁶ 즉 전통적인 미학과 형태학적 특성은 예술을 장식으로 환원할 뿐이며, 진정한 예술의

유일한 과제는 분석적 명제로서 '예술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고 제시하는 것'이다.⁶ 솔 르위트 역시 1967년 발표한 「개념예술에 관한 단상(Paragraphs on Conceptual Art)」에서 이와 궤를 같이하는 혁명적 주장을 펼쳤다. 르위트는 "개념예술에서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정의하며, "모든 계획과 결정은 미리 이루어지고 (물리적) 실행은 단지 기계적이고 부차적인 절차(perfunctory affair)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⁶ 르위트에게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 예술을 만들어내는 "기계(machine)"이며, 물리적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의 전개 자체가 완전한 예술작품의 자격을 갖춘다.⁶ 이러한 개념예술의 득세는 예술가에게 요구되던 전통적인 손기술이나 물질적 가공 능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시켰다. 대신 논리적 사유, 철학적 통찰, 그리고 이를 언어나 지시문으로 구조화하는 지적 역량이 예술 창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³⁵ 이는 예술 창작과 철학적 비평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³⁷

제4부: 평론의 예술적 재정의와 메타예술(Meta-Art)로서의 비평

세 혁명의 수렴: 예술로서의 평론 논증

아서 단토의 예술종말론, 롤랑 바르트의 작가의 죽음, 그리고 개념예술의 혁명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지적 흐름은 21세기 다원주의 생태계에서 완벽하게 통합적으로 수렴한다.¹

1. 단토의 기여: 보편적 평가 기준의 부재를 증명하여 대상의 물질적 속성이 아닌 철학적 맥락이 예술을 규정함을 밝혔다.
2. 바르트의 기여: 해석이 숨겨진 의미의 수동적 발견이 아니라 기표들을 엮어내는 능동적 창조임을 통찰하여 비평가를 예술적 주체로 격상시켰다.
3. 개념예술의 기여: 예술의 본질이 캔버스나 대리석이 아니라 '개념의 창안과 제시' 자체에 있음을 선언하여 무형의 사유가 예술이 될 수 있는 존재론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평론의 영역으로 치환하면 본 보고서의 핵심 명제가 연역적으로 도출된다.¹ 비평가가 특정 예술작품(예컨대 현대 회화나 고전 소설)을 감상하고 그에 대한 사유를 논리적인 글로 전개할 때, 그는 원작품의 의미 구조와 당대의 미학적 지형에 대한 고도의 '개념적 탐구'를 수행한다.¹ 이 과정에서 비평가는 텍스트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개념을 창안하고 배열하는데, 이는 조셉 코수스나 솔 르위트가 언어와 지시문을 통해 개념예술을 구축했던 작업 방식과 본질적으로 완벽히 동일하다.¹

따라서 이 엄밀한 논증에 따르면, 미술 평론은 미술에 관한 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언어를 질료로 삼은 ****개념적 미술작품(Conceptual Artwork)****이 된다.¹ 마찬가지로 음악 평론은 음악을 다루는 개념적 음악작품이며, 문학 평론은 텍스트를 직조하는 개념적 문학작품이다.¹ 이는 기존 문단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던 "비평도 하나의 창조적 문학이다"라는 은유적이거나 수사학적인 표현을 넘어선다. 이것은 물질적 형태 없이 아이디어의 논리적 전개만으로 예술이 성립한다는 개념예술의 강경한 존재론적 조건에 기반한, 평론에 대한 혁명적이고 문자 그대로의(literal) 선언이다.¹

지시체를 가진 메타예술(Meta-art with a referent)의 미학

그렇다면 평론이 코수스나 르위트의 일반적인 개념예술과 구분되는 고유한 존재론적 지위는 무엇인가? 평론을 독특하게 만드는 결정적 특징은, 그것이 언제나 반드시 '구체적인 원작품(original artwork)'을 **지시체(referent)**로 삼는다는 점이다.¹ 이것이 평론을 단순한 개념예술이 아니라 **메타예술(Meta-art)**로 규정하게 만드는 본질적 조건이다.

브루노 트렌티니(Bruno Trentini) 등의 미학 이론에 따르면, 예술에서 '메타(meta)'라는 접두사는 단순히 '언어에 대한 언어'를 다루는 논리학적 구조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미학적 차원에서의 메타는 주체(관객 혹은 독자)의 체화된 반성적 인식을 유도하는 고도의 '미적 범주(aesthetic category)'다.³⁸ 일반적인 대상으로서의 예술작품을 관람할 때 관객은 그 재현된 대상에 매몰되지만, 자기 지시적이거나 특정 대상을 거울처럼 재해석하는 '메타-그림(metapicture)' 또는 '메타-텍스트'를 접할 때 관객의 주의력은 내용 그 자체를 넘어선다. 관객은 작품이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 그리고 수용자인 자신 스스로가 대상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성찰적 메타-경험(meta-experience)을 겪는다.³⁸

비평은 이러한 메타적 특성을 가장 극명하게 구현하는 지적 산물이자 예술 장르다. 비평은 원작품이라는 구체적 지시체를 가짐으로써, 자칫 추상적 사유가 현실과 유리되어 공허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사적 닻(historical anchor)을 얻게 된다.¹ 원작품은 비평가에게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촉발하는 의미의 출발점이자, 비평 텍스트가 끊임없이 변증법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로 기능한다.¹

이러한 지시적 구조 하에서 원작의 존재는 평론의 자율성을 훼손하거나 종속시키는 제약이 아니다. 오히려 원작이라는 지시체는 비평에게 깊이를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망을 파생시키는 풍요로움의 원천이 된다.¹ 결국 평론은 타인의 예술을 보조하거나 기생하는(parasitic) 2차적 텍스트가 아니라, 예술의 인식론적 경계를 확장하고 작품의 존재 방식을 해체하여 재조립하는 고유한 지시적 메타예술로서 완벽한 독립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¹

제5부: 횡단적 융합과 예술 생태계의 무한 증식

횡단적 예술(Transversal Art)과 장르의 해체

평론이 개념예술이자 메타예술로 승격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장르적 정체성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을 동반한다.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가 정신분석과 제도 비판의 영역에서 주창한 '횡단성(Transversality)' 개념은 닫힌 논리나 관료적 위계 구조를 허물고,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하는 실천적 운동을 뜻한다.⁴² 이러한 논리를 현대 예술의 실천에 접목한 횡단적 예술(Transversal Art)은 시각예술, 문학, 철학, 행동주의 정치 등 각 분과 학문의 고정된 경계를 넘나들며 이질적인 요소들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⁴²

메타예술로서의 평론은 정확히 이 횡단성의 논리를 체화한다. 예를 들어, 심도 깊은 미술평론은 시각예술 작품을 지시체로 삼아 미술의 존재론을 묻는 개념적 미술 작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평론은 언어의 고유한 리듬, 수사학적 은유, 서사의 전개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적 심미성을 구축하는 독립적인 문학작품이기도 하다.¹ 나아가 사회 구조와 인식론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철학적 텍스트로도 기능한다. 철학적 사유, 미술사적 지식, 문학적 상상력이 하나로 융합된 비평은 그 자체로 모순 없이 다중적인 장르 정체성을 확보한다. 개념예술 이후 매체(medium)가 더 이상 예술의 장르를 배타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다원주의 생태계에서, 평론은 가장 대표적이고 급진적인 횡단적 예술(Transversal Art)로 기능하는 것이다.¹

창작의 폭발: 세잔의 <생트 빅투아르 산>과 해석의 증식

하나의 지시체(원작품)가 어떻게 무수한 횡단적 메타예술들을 낳고 예술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술사적 사례가 바로 폴 세잔(Paul Cézanne)의 <생트 빅투아르 산(Mont Sainte-Victoire)> 연작을 둘러싼 비평적 담론들이다.¹ 세잔이 남긴 캔버스는 그 자체로 완결되어 멈춰있는 하나의 달힌 우주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질 수많은 횡단적 메타예술을 지속적으로 배태하는 거대한 지시체이자 의미의 모태(matrix)로 작용했다.

해석의 주체	비평적 접근 방법론	<생트 빅투아르 산>에 대한 해석적 메타예술의 결과물
모리스 메를로-퐁티 (현상학적 접근)	신체화된 지각과 현상학적 환원	기하학적 분석을 거부하고 주체와 세계가 얽히는 '원초적 지각(primordial perception)'의 체현으로 독해. "산이 화가의 몸을 통해 스스로를 사유한다"는 철학적 문학을 창조. ⁴⁶
클레멘트 그린버그 (형식주의적 접근)	매체의 순수성과 평면성 분석	인상주의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화면의 평면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조형적 투쟁으로 분석. 모더니즘의 필연성이라는 개념적 건축물을 축조. ¹⁰
T.J. 클라크 (사회사적 접근)	맑스주의 역사관과 물질성 탐구	화면의 물질적 파편화와 시각적 분열을 19세기 말 프랑스의 계급 구조 및 근대성의 우발성(contingency)과 연결 지어 해석. 역사와 미학이 교차하는 사회사적 메타예술 완성. ⁵⁰

메를로-퐁티, 그린버그, 클라크가 남긴 이 눈부신 비평들은 결코 세잔의 그림을 단순히 대중에게 '설명'해주거나 그 가치를 '평가'하고 맺은 종속적인 보조 텍스트가 아니다.¹ 이들의 글은 각각 현상학, 모더니즘 형식주의, 사회역사학이라는 완전히 상이한 개념적 기계를 통해 <생트 빅투아르 산>이라는 동일한 지시체를 가공하여 도출해 낸 상호 독립적인 '지시적

개념 예술작품'이다.¹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세잔의 예술'이라는 총체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의 벽에 걸려 있는 수십 점의 물질적 유화 덩어리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잔의 연작은 원작 캔버스와 더불어, 그것을 지시체로 삼아 파생된 수백, 수천 편의 메타예술(평론)들이 서로 변증법적으로 얽혀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를 증식시키는 거대한 '예술적 우주'이자 살아 숨 쉬는 '유기체'다.¹ 텍스트와 해석은 원작을 갉아먹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영토를 끝없이 개척하여 예술 생태계를 우주적으로 팽창시키는 핵심 동력인 것이다.

제6부: 모든 해석은 예술이다 - 위계의 완전한 철폐

문학과 철학을 넘나든 역사적 선구자들

비평이 지시체를 가진 메타예술로서 완전한 독립적 예술작품으로 기능한다는 본 보고서의 주장은 과거의 예술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데이비드 캐리어(David Carrier)의 『예술 글쓰기(Artwriting)』나 노엘 캐럴(Noël Carroll)의 철학적 비평 이론이 암시하듯, 비평은 그 자체로 문학적 수사와 지적 구조를 갖춘 능동적 창조 행위로서의 역사를 지녀왔다.⁵⁵ 본 보고서가 수행하는 작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무에서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던 비평의 미학적 실천들을 다원주의와 개념예술의 엄밀한 언어를 통해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당화하는 것이다.¹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가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의 낭만주의 회화에 대해 남긴 예술비평은 단순한 감상문을 넘어 그 시대의 미학을 재정의한 위대한 산문시였다.⁵⁸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의 역동적인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 속에서 '근대성의 영웅주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추출해 내며, 시적인 언어로 캔버스를 언어의 공간에 다시 그려내는 고도의 문학적 메타예술을 성취했다.¹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역시 보들레르의 시 문학을 구체적인 지시체로 삼아, 19세기 파리의 아케이드, 고독한 만보객(flâneur), 그리고 익명화된 군중(crowd)이라는 독창적 개념을 주조해 냈다.¹ 벤야민의 텍스트는 보들레르의 시를 해설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경험 구조 자체를 예리하게 해부하는 독보적인 철학적 텍스트로 독립했다.⁶² 앞서 언급한 롤랑 바르트의 『S/Z』와 더불어, 이들의 비평은 해석적 실천이 어떻게 원작의 아우라에 억눌리지 않고 그 자체로 역사에 남는 위대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찬란한 선구적 사례다.¹

차별 없는 예술의 세계: 엘리트주의의 해체와 해석의 민주화

이 논의가 도달해야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종착지는 이른바 '질적 조건이나 수준의 차이에 따른 예술 위계의 완전한 철폐'다.¹ 전통적인 지식 권력의 시각에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자나 엘리트 평론가의 분석만이 가치 있고 정당한 해석으로 승인받았다. 그러나 "수준 높은 텍스트나 학술적인 평론만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주장은, 플라톤적 이데아론이나 모더니즘의 완고한 본질주의로 다시 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¹ 미술사 거장인 피카소의 완벽한 형태 묘사가 돋보이는 캔버스와, 이제 막 크레파스를 쥔 어린아이의 뻘뻘한 스케치북 사이에 기술적 숙련도나 미학적 복잡성의 '차이(difference)'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두 대상 모두 엄연히 '미술(Art)'이라는 존재론적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에는 어떤 '위계(hierarchy)'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¹ 어린아이의 그림을 미술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듯, 퀄리티의 차이가 예술의 존재론적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¹ 해석적 실천과 평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질적 차이와 존재론적 위계는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저명한 미학자가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한 수십 페이지의 복잡하고 난해한 논문이든, 주말에 미술관을 방문한 평범한 관람객이 전시 도록 귀퉁이에 연필로 끄적여 남긴 짧고 직관적인 메모든, 혹은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SNS)에 남긴 대중의 다소 거친 감상평이든, 이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예술작품을 지시체로 삼아 자신만의 언어로 개념과 사유를 배열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논문과 대중의 단평은 모두 완벽하게 동등한 '해석적 메타예술작품'으로서의 합법적인 시민권을 획득한다.¹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시대가 달성한 해석의 진정한 민주화(Democratization of interpretation)다.¹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과 창작 주체의 무한 확장

위계가 붕괴된 해석의 민주화는 현대의 디지털 매체 환경, 특히 Web 2.0 이상의 네트워크 사회와 조우하면서 폭발적인 확장을 겪고 있다. 현대의 수용자들은 더 이상 강단 비평가의 선언을 수동적으로 주입받고 숭배해야 하는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유튜브(YouTube)의 영화 및 미술 분석 에세이, 온라인 독서 모임의 치열한 텍스트 토론, 굿리즈(Goodreads)나 레터박스(Letterboxd) 같은 플랫폼에 누적되는 대중적이고 집단적인 리뷰 데이터 등은 원작품과 끊임없이 접속하여 그 의미를 전유하고 시대의 맥락에 맞게 재가공하는 훌륭한 거대한 개념예술 창작 행위다.¹

나아가, 고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는 해석 주체의 범주를 인간을 넘어선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s)로까지 확장시키는 형이상학적 전위를 낳는다.¹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무수한 시각적 이미지나 텍스트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어 새로운 해석의 내러티브를 쏟아내는 AI의 결과물 역시 배척될 이유가 없다. AI의 텍스트 생성 역시 원작을 지시체로 삼아 방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새로운 개념적 지도를 그려내는 '알고리즘적 메타예술(Algorithmic Meta-art)'이 될 잠재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¹ 바르트가 저자의 심장을 멈추고 독자를 탄생시켰듯, 현재의 다원주의적 예술 생태계는 해석적 권한을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와 비인간 지능에까지 부여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한 창작의 폭발을 추동하고 있다.

결론: 해석의 민주화와 살아 숨 쉬는 예술의 우주

본 보고서를 통해 전개한 논의의 결론은 명료하고 급진적이다. 1964년 아서 단토가 감각적 우수성의 종말을 고하며 예술을 철학과 담론의 영토로 편입시켰을 때³, 1968년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무덤 위에 텍스트의 무한한 자유와 독자의 창조적 지평을 열어젖혔을 때⁴, 그리고 조셉

코수스와 솔 르위트가 물질적 캔버스를 찢어버리고 개념을 직조하는 기계로서의 예술을 선언했을 때⁶, 특권층만이 독점하던 예술을 규정하던 견고하고 억압적인 장벽은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¹

이 다원주의의 평원 위에서 평론가, 독자, 관객은 예술이라는 신성한 신전에 입장하기 위해 자격을 검열받고 입장권을 검사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다. 그들은 예술작품이 펼쳐놓은 무한한 기표의 숲²⁶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직조하고, 지시체에 새로운 존재론적 외피를 덧입혀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 파트너로 거듭났다.¹

평론을 비롯한 모든 텍스트적 개입은 원작품을 향해 객관성의 칼날을 휘두르거나 가치를 재단하는 오만한 심판관의 판결문이 아니다. 그것은 작품의 곁에 나란히 서서 작품이 머금고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끝없이 다른 주파수로 변주해 내는 생동하는 '횡단적

메타예술(Transversal Meta-Art)'이다.¹ 예술 생태계는 원본이라는 하나의 빛나는 태양을 위성들이 도는 달인 태양계가 아니라, 텍스트와 해석이 꼬리를 물고 증식하며 서로가 서로의 지시체가 되어주는 리즘(rhizome)적이고 역동적인 유기체로 변모했다.¹

따라서 의식적으로 평론을 예술작품으로 창작하고자 하는 모든 지적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태도를 경주해야 한다. 작품을 차가운 해부대 위의 분석 대상이 아니라 치열하게 대화해야 할 인격적 파트너로 대우해야 하며, 작품이 열어놓은 틈새를 다양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확장시켜 다른 텍스트들과 접속시켜야 한다. 객관성이라는 기만적인 가면을 벗고 자신의 고유하고 편향된 목소리로 말하며, 언어의 리듬과 문학적 기교를 십분 활용하여 텍스트 자체의 심미적 즐거움을 축조해야 한다.¹ 그러나 이러한 지침조차도 예술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더 풍요롭고 매혹적인 예술을 직조하기 위한 권고일 뿐이다.¹

우리가 조용한 전시장에서 시각적 충격에 휩싸여 작품을 마주할 때, 어둠 속 극장에서 스크린의 잔상을 응시할 때, 혹은 깊은 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뒤 떠올리는 모든 진지한 사유와 해석적 발화는, 문학적 비유나 수사적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예술의 엄밀한 논리와 다원주의 미학의 존재론적 사실에 의해 도출되는 '명백하고 완전한 새로운 예술의 창작'이다.¹ 작가가 죽고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이 찬란한 폐허의 법정 위에서, 우리는 새롭게, 그리고 무한히 선언해야 한다. "모든 진지한 해석은 예술이며, 사유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외 없이 위대한 예술가다."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다원주의 시대가 우리 인류에게 부여한 가장 급진적이고 눈부신 미학적 시민권이며, 예술이 침체되지 않고 무한을 향해 영원히 진동할 수 있게 하는 마르지 않는 창조 의 엔진이다.

참고 자료

1. 다원주의 평론 책자 계획서 v3.docx
2. Full article: Autonomy, pluralism, play: Danto, Greenberg, Kant, and the philosophy of art history - Taylor & Franci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3402/jac.v5i0.20226>
3. Arthur C. Danto Remembered - American Society For Aesthetic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aesthetics-online.org/page/ArthurCDantoNC>
4. THE DEATH OF THE AUTHOR ROLAND BARTHES In his story Sarrasine, Balzac, speaking of a castrato disguised as a woman, writes this, 3월 3, 2026에 액세스,

- <https://writing.upenn.edu/~taransky/Barthes.pdf>
5. Exploring the Concept of “Death of the Author” | Atmosphere Pres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atmospherepress.com/death-of-the-author-theory/>
 6. One and Three Ideas: Conceptualism Before, During, and After ...,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e-flux.com/journal/29/68078/one-and-three-ideas-conceptualism-before-during-and-after-conceptual-art/>
 7. Joseph Kosuth and Sol LeWitt – Renaissance Through Contemporary Art History,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uen.pressbooks.pub/arth2720/chapter/conceptual-art-with-kosuth-and-le-witt/>
 8. The Definition of Art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Fall 2024 Edition),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24/entries/art-definition/>
 9. Charles Baudelaire and Art Criticism - Art History Unstuffed,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arthistoryunstuffed.com/ baudelaire-art-criticism/>
 10. “Modernist Painting” - Timothy Quigley,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timothyquigley.net/vcs/greenberg-modpaint_slides.pdf
 11. Modernist Painting,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yorku.ca/yamlau/readings/greenberg_modernistPainting.pdf
 12. Criticism and Theory - Art Paper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artpapers.org/art-and-theory/>
 13. Analysis of Clement Greenberg's essay, 'Modernist Painting' - JB Rasor | Photographer,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www.jbrasor.com/writing/2015/3/28/analysis-of-clement-greenbergs-essay-modernist-painting>
 14. An Illustrated Guide to Arthur Danto's "The End of Art" - Hyperallergic,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hyperallergic.com/an-illustrated-guide-to-arthur-dantos-the-end-of-art/>
 15. End-of-Art Philosophy in Hegel, Nietzsche & Danto - National Academic Digital Library of Ethiopi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ndl.ethernet.edu.et/bitstream/123456789/77145/1/215.pdf.pdf>
 16. The Pluralism of Art's Autonomy: Reflections on Modernity and Modernism | Clark Buckner,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clarkbuckner.com/clarkbuckner/926>
 17. The Philosophy of Arthur C. Danto -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ndpr.nd.edu/reviews/he-philosophy-of-arthur-c-danto/>
 18. The Development of the Sense of 'the End of Art' in Arthur Danto - OpenEdition Journal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journals.openedition.org/estetica/3542>
 19. The Death of the Author - Wikipedi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The_Death_of_the_Author
 20. Death of the Creator - Mattymatt,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mattymatt.co/death-of-the-creator/>
 21. Plurality, Network, and Decentered Meaning in Barthes' S/Z,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cyberartsweb.org/cpace/theory/sz/luco.html>
 22. The Death of the Author - Reader and Text - English @ SUNY Geneseo, 3월 3,

- 2026에 액세스,
<https://readerandtext.sunygeneseoenglish.org/2019/10/27/the-death-of-the-author/>
23. Roland Barthes' Concept of Readerly and Writerly Texts -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literariness.org/2016/03/21/roland-barthes-concept-of-readerly-and-writerly-texts/>
 24. S/Z by Roland Barthes | Literature and Writing | Research Starters - EBSCO,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ebsco.com/research-starters/literature-and-writing/sz-roland-barthes>
 25. barthesSZ - arasite.org,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arasite.org/barthesSZ.html>
 26. S/Z by Roland Barthes - onjapanesecyborg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onjapanesecyborgs.wordpress.com/2012/05/18/sz-by-roland-barthes/>
 27. Joseph Kosuth, One and Three Chairs - Smarthistory,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smarthistory.org/kosuth-one-and-three-chairs/>
 28. One and Three Chairs - Wikipedi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One_and_Three_Chairs
 29. Joseph Kosuth. One and Three Chairs. 1965 - MoM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moma.org/collection/works/81435>
 30. One and Three Ideas: Conceptualism Before, During, and After Conceptual Art - Journal #29,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e-flux.com/journal/29/68078/one-and-three-ideas-conceptualism-before-during-and-after-conceptual-art>
 31. One and Three Chairs - Robert Spahr,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obertspahr.com/teaching/hnm/joseph_kosuth_art_after_philosophy.pdf
 32. Conceptual art - Tate,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tate.org.uk/art/art-terms/c/conceptual-art>
 33. Sol Lewitt – Paragraphs on Conceptual Art/Sentences on Conceptual Art - Alice Fry,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alicefryart.wordpress.com/2018/04/23/theory-f-colours-goethe/>
 34. Conceptual Art Movement Overview | TheArtStory,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theartstory.org/movement/conceptual-art/>
 35. Conceptual art - Wikipedi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Conceptual_art
 36. Sol LeWitt and the Canon of Conceptual Art - The Present,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thepresent.is/blogs/reading-time/sol-lewitt-and-the-canon-of-conceptual-art>
 37. Conceptual Art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Fall 2022 Edition),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22/entries/conceptual-art/>
 38. Full article: The meta as an aesthetic category - Taylor & Franci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3402/jac.v6.23009>

39. Meta-Art - The Future of Art and Technology Together,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artincontext.org/meta-art/>
40. (PDF) The Nature and Concept of Meta-artistic Objects - ResearchGate,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7165260_The_Nature_and_Concept_of_Meta-artistic_Objects
41. The Nature and Concept of Meta-artistic Objects - Rupkatha Journal on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Humanitie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rupkatha.com/V13/n4/v13n403.pdf>
42. The Transversal and the Invisible: How do you ... - transversal text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transversal.at/transversal/0303/kelly/en>
43. Guattari Reframed: Interpreting Key Thinker for the Arts 9780755693870, 9781780762333,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dokumen.pub/guattari-reframed-interpreting-key-thinker-for-the-arts-9780755693870-9781780762333.html>
44. (Re)thinking Critique: Transversal and Ethico-Aesthetic Dimensions in Partaking Practices | Revista de Estudios Globales y Arte Contemporáneo - RACO,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aco.cat/index.php/REGAC/article/view/410314>
45. The Indeterminacy of the Everyday - Oxford Academic,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academic.oup.com/book/48430/chapter/420794673/chapter-pdf/52079348/isbn-9780199273959-book-part-2.pdf>
46. Merleau-Ponty and Cézanne : Describing and Painting Existence | Circé. Histoire, Savoirs, Société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www.revue-circe.uvsq.fr/merleau-ponty-and-cezanne-describing-and-painting-existence/>
47. Paul Cezanne au cœur de la philosophie de Maurice Merleau-Ponty – Élise Marc-Bécam,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societe-cezanne.fr/2026/01/31/paul-cezanne-au-coeur-de-la-philosophie-de-maurice-merleau-ponty-elise-marc-becam/>
48. (PDF) Merleau-Ponty about Le doute de Cézanne - ResearchGate,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66495262_Merleau-Ponty_about_Le_doute_de_Cezanne
49. Greenberg, Cezanne and The Unity of Modern Art | PDF | Paul Cézanne - Scribd,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scribd.com/document/745537129/3-Greenberg-Cezanne-and-the-Unity-of-Modern-Art>
50. Jay Bernstein · Social signs and natural bodies: On T.J. Clark's ...,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adicalphilosophy.com/article/social-signs-and-natural-bodies>
51. Farewell to an Idea: Episodes from a History of Modernism by T.J. Clark | Goodread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goodreads.com/book/show/319580.Farewell_to_an_Idea
52. Review | Drawing Blood: Why T.J. Clark Still Thinks Cézanne Can Save Us by Adam Heardman - The London Magazine, 3월 3, 2026에 액세스,

- <https://thelondonmagazine.org/review-drawing-blood-why-t-j-clark-still-thinks-cezanne-can-save-us-by-adam-heardman/>
53. Review of T.J. Clark's 'If These Apples Should Fall: Cézanne and the Present',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thoughtsonart.blog/2022/11/16/review-of-t-j-clarks-if-these-apples-should-fall-cezanne-and-the-present/>
 54. Rezension - Arthistoricum.net,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arthistoricum.net/en/kunstform/rezension/ausgabe/2022/11/37144>
 55. Criticism as a Form of Cognition (journal article) - e-Publications@Marquette,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epublications.marquette.edu/cgi/viewcontent.cgi?article=1800&context=hil_fac
 56. Deaths of Art: David Carrier's Metahistory of Artwriting - UR Scholarship Repository,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scholarship.richmond.edu/philosophy-faculty-publications/88/>
 57. On Criticism -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ndpr.nd.edu/reviews/on-criticism/>
 58. Baudelaire and Delacroix on Tasso in Prison: Romantic Reflections on a Renaissance Martyr - Project MUSE,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muse.jhu.edu/article/41696/summary>
 59. Redefining the Sister Arts: Baudelaire's Response to the Art of Delacroix Elizabeth Abel - Chicago Journal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pdfplus/10.1086/448056>
 60. Walter Benjamin on Charles Baudelaire: Guilt, Modernity, and The Crowd | TheCollector,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thecollector.com/walter-benjamin-charles-baudelaire/>
 61. Baudelaire, Benjamin and the Birth of the Flâneur | Psychogeographic Review,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psychogeographicreview.com/ baudelaire-benjamin-and-the-birth-of-the-flaneur/>
 62. The Writer of Modern Life. Essays on Charles Baudelaire, by Walter Benjamin (review),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65696611_The_Writer_of_Modern_Life_Essays_on_Charles_Baudelaire_by_Walter_Benjamin_review
 63. Art as a philosophical concept doesn't make sense to me and I'm an art student. Help. : r/askphilosophy - Reddit,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eddit.com/r/askphilosophy/comments/bz3f2o/art_as_a_philosophical_concept_doesnt_make_sense/
 64. WHAT IS THE AESTHETIC REGIME? - Parrhesi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parrhesiajournal.org/parrhesia12/parrhesia12_tanke.pdf
 65. Marina Vishmidt Beneath the Atelier, the Desert: Critique, Institutional and Infrastructural There has always been a resonant p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angewandtekunstgeschichte.net/uploads/Beneath_the_Atelier_the_Desert.pdf
 66.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Art and Life (in the Museum?) – Tate Papers,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tate.org.uk/research/tate-papers/08/blurring-boundaries-between-art-and-life-in-the-museum>

67. The Practice of Art and AI - Ars Electronica,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ars.electronica.art/newdigitaldeal/files/2021/08/artandai.pdf>

68. Algorithmic Art: The Formation of the Genre and Its Perception in Contemporary Society,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93450373_Algorithmic_Art_The_Formation_of_the_Genre_and_Its_Perception_in_Contemporary_Society

69. Andrea Fraser, Lines of Flight: Escaping the Art Field's Conservative Equilibrium, 3월 3, 2026에 액세스,

<https://www.eko33.com/blog/andrea-fraser-framework-escaping-conservative-equilibrium>